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문국진/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의학적인 이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고치지 못하던 질병도 고치게 되고 사망률은 저하되어 사람의 평균수명은 연장 일로에 있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의료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의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급증됨에 따라 병원은 혼잡해 졌고, 의사와 간호사를 위시한 의료인의 업무량이 증가되어 오늘날 병원의 현장은 '3시간 대기, 3분 진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짜증스러운 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불만을 갖는 일이 점점 많아지며 의료인은 나름대로 업무량의 증가로 지친 하루의 일과를 매꾸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의료계의 실정이다.

이러한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만스러운 생각은 사고가 났다하면 분쟁으로 번지고 웬만한 이해나 해결은 어렵고 법적인 투쟁으로 몰고가는 일이 점점 많아져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를 사는 우리 사회인은 환

자나 의료인을 막론하고 의료분쟁 증가의 심각화는 어느누가 나빠서라기 보다 현대사회의 발전된 의료가 몰고 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한걸음씩만 물러서 서로의 변화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은 점점 심각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더 명확하다.

따라서 의료인 그리고 환자가 된 국민에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양될 변화된 문제들을 기술하기로 한다.

1. 의료의 기계화와 대화단절

발전된 의료는 그 진단이나 치료에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진단도 영상화된 그림에 의해서 그리고 각종영상병리검사의 계량화(計量化)된 수치의 변동과 빛깔의 변화에 의해서 진단되고 이것에 입각해서 치료하고 그 치료의 효과 역시 기계화된 데이터로써 평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의 대화의 기회와 시간은 적고, 단축되어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호소마저 묵살되고 오로지 기계가 제공하는 수치와 영상의



변화에 의거한 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는 섭섭한 마음이 언제나 한구석에 남아있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의사의 진찰 즉 환자의 몸을 만져보는 촉진(觸診), 두들겨 보는 타진(打診), 소리를 들어보는 청진(聽診) 그리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병의 시근을 알아내는 문진(問診) 등과 같이 의사와 환자의 몸과 몸이 그리고 말이 서로 오고가는 가운데 진단이 이루어졌고 치료도 행하여져 환자는 의사와 친근감이 있었다.

이것이 발전된 소위 과학화된 의료에서는 대화가 단절되어 대인관계는 점점 희박해 가기만 한다.

2 의료의 전문화, 대형화와 환자의 고립

의료가 발전됨에 따라 분업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즉 전문의가 탄생하게 되었고 전문의 제도는 다시 세전문화

(細專門化)된 의사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전문의들은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도 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모든과의 전문의가 모여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고 이러한 발전된 의료는 종합병원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의료의 발전은 병원의 형태를 대형화 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인들로 볼 때는 종합병원은 모든과의 전문의를 구비하고 있어 양질의 의료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최선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종합병원에 가면 진찰권을 사야 한다. 그런데 자기의 병이 정형외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경외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환자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만스러운
생각은 사고가 났다하면
분쟁으로 번지고 원만한 이해나
해결은 어렵고 법적인 투쟁으로
몰고가는 일이 점점 많아져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몰어 몰어서 해당과에 찾아가면 진찰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처방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다. 약은 약국에 가 타고, 주사는 간호사 한테서 맞고 내일 또 오라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살 수 있겠는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날 가면 어제 의사가 아니라 또 새로운 의사가 병을 치료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환자는 불안해 진다. 이러한 불안이 결국은 불신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를 불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사의 개인행동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발전된 의료 즉, 대형화된 의료형태가 몰고 온 시대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의료인들은 전문화된 종합병원에서의 환자의 불안은 대형화된 속의 고립된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환자측은 전문화되고 대형화된 병원에서는 개인병원에서와 같이 일정하게 지정된 의사가 지정된 환자만을 진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발전된 의료이지만 사고의 위험성은 더 많아

의학이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이론, 의료기술, 새로운 기자제, 새로운 의약품 등이 개발되어 많은 질병이 정복되고 인명구제에도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소위 사고(事故)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대형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페니실린이 없을 때는 이를 모르고 지냈다. 페닐실린이 발견되어 이를 질병치료에 사용하여 많은 세균성질환이 정복되었으나 이에 대한 과민한 사람이 생겨 이를 주사하면 과민성 쇼크 증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급사(急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의료에만 극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전반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즉 과학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입되어 편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며 그것도 점차 자주 일어나고 대형화되는 경향이다. 그러한 예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사고 특히 차사고의 예에서 이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인은 발전되어 과학화되고 현대화된 의료라 하지만 그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깊숙이 동반되어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발전된 의료라 하지만 그 속에는 환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외면하지 말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만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